

## 2.

### 점필재 선생과 그의 젊은 제자, 그들의 학문적 우의

평상시에는 사람을 접대하는 데 있어 온통 화기(和氣)뿐이었으나,  
의리가 아닌 것이면 일개(一介)도 남에게서 취하지 않았다.  
오직 경사(經史)를 탐독하여 늘그막에 이르러서도  
게으름 줄을 몰랐으므로 얻은 것이 호박(浩博)하였다.  
그리하여 사방의 학자들이 각각 그 그릇의 크고 작음에 따라  
마음에 만족하게 얻어 돌아갔는데,  
한번 공의 품제(品題)를 거치면 문득 훌륭한 선비가 되어서  
문학(文學)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친 자가 태반이나 되었다.

- 홍귀달의 〈신도비명 병서(神道碑銘并序)〉 중에서



추강 남효온은 「사우명행록」에서 자신의 사우(師友) 가운데 김굉필·안우·노조동·정세린·양준·홍유손·이계맹·강흔 등 7명을 점필재 선생에게 배운 제자들로 꼽고 있다. 물론 점필재의 문도는 이들만은 아니다. 『점필재집』 「문인록」은 무려 49명에 달하는 많은 인물을 제자로 올려놓고 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제자들도 적지 않다. 그렇게 보면, 15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신진사림들은 거의 대부분이 점필재의 제자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숫자이다. 점필재 사후, 제자 이원은 문충공(文忠公)이라는 시호를 올리는 게 좋겠다며 그 까닭을 이렇게 밝혔다.

봉상시의 이원(李胤)이 계달하기를, “선비의 습속이 밝지 않은 것은 도학(道學)이 행해지지 않는 데에서 말미암은 것이고, 도학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사도(師道)가 전해지지 않는 데에 근원한 것입니다. 김종직은 비로소 마음을 바르게 하는 학문[正心之學]을 제창하여 후진들을 인도하여서 도와주어 바른 마음을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사도(斯道)를 임무로 하고 사문(斯文)을 흥기시키는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삼았으니, 그 공은 공명사업이 탁월한 자보다 도리어 현명함이 있습니다.” 것이기에 도덕박문(道德博聞)으로 시호를 의논한 것입니다.” 하였다.

- 『성종실록』 성종 24년 1월 9일

이원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학문을 제창하여 후진들을 인도하여 준 큰 스승으로 점필재를 기억했던 것이다. 심지어 “김종직은 많은 책을 박람하여 공부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으며, 후

진을 가르치고 일깨워 젊은 선비들이 경앙(景仰)하고 있습니다.”  
라 증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젊은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고, 오랫동안 큰 스승으로 추억하고 있는 까닭은 점필재의 학문의 넓이와 도학의 깊이가 남달랐기 때문일 터다. 하지만 큰 스승이란 그런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런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특별한 무엇인가 있다.

○ 노조동(盧祖同)은...아버지의 상을 치르면서 3년 동안 시묘하며 한결같이 『가례』를 따랐다. 시숙(時叔)과 더불어 점필재 문하에서 함께 배우니, 점필재 선생이 그를 공경하였다.

○ 정세린(鄭世麟)은 영남에 살며 점필재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그 학문이 노조동과 같았고 시재(詩才)가 매우 높으니, 점필재 선생이 그를 공경하였다. 병오년에 죽었는데, 나이가 22세였다.

점필재의 두 제자, 노조동과 정세린에 대해 남효운이 『사우명행록』에 기록하고 있는 있는 모습이다. 모두 행실이 바르고 재주가 뛰어난 제자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런 그들을 점필재는 ‘공경’했다고 한다. 스승으로서 제자를 공경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제자를 공경할 줄 아는 선생이 바로 점필재였고, 그런 남다른 자세를 갖고 있었기에 신진사류의 우러름[景仰]을 한 몸에 받는 스승으로 추억될 수 있었을 것이다.

## 장면 1. 영남의 젊은 인재와 함께 했던 목민관 시절

점필재는 늙은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 화려한 서울의 벼슬살이를 사양하고 지방관을 자청했다. 그리하여 함양군수와 선산부사를 하며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고 향촌의 풍속을 교화하는 일에 힘썼다. 그 가운데 인근의 젊은 인재를 모아 가르치는 것을 자신의 중요한 임무로 자처했다.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점필재에게 배우기 위해 모여들었다. 우리나라 도학의 맥을 잇는 한훤당 김굉필이 벗 곽승화와 함께 점필재를 찾아왔던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점필재는 그들을 맞이하는 기쁨과 함께 다음과 같은 당부를 건네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窮荒何幸遇斯人 궁벽한 곳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던고  
珠貝携來爛熳陳 보배를 싸고 와서 찬란하게 펼쳐놓았네.  
好去更尋韓吏部 잘 가서 다시 한 이부를 찾아보게나  
愧余衰朽未傾困 나는 쇠해서 곳집 못 기울임이 부끄럽구려.

看君詩語玉生煙 그대의 시어를 보매 옥이 연기를 뿜는 듯하니  
陳榻從今不要懸 진번의 걸상을 이제부터 걷어둘 것 없겠네.  
莫把股盤窮詰屈 은반을 가지고 힐굴에 몰두하지 말고  
須知方寸淡天淵 모름지기 마음 하나 맑게 할 줄을 알아야 하리.

- <김.광 두 수재에게 답하다[答金郭二秀才]>

점필재 자신은 한유라든가 두보의 시문에 매우 능했지만, 자신에게 공부하러 온 김굉필과 곽승화에게 젊은 시절부터 너무 문장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지 말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공부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뒷날, 김굉필이 ‘소학동

자(小學童子)로 불릴 만큼 성리학의 기본서인 『소학』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던 결과이다.

이들은 점필재가 선산부사로 옮겨갔을 때, 다시 스승을 따라 그곳에 찾아가서 수학할 정도로 깊은 사제의 인연을 이어갔다. 선산향교에서 옛글을 함께 토론하던 젊은 제자들이 과거를 보러가기 위해 하직 인사를 드리던 날, 점필재는 다음과 같은 기대를 담아 전송했다.

博帶褒衣正匹儕	박대 포의의 선비들 정히 서로 벗을 이루어라
登音喜聽月波西	월과정 서쪽에 찾아오는 발자국 소리 반가웠지.
幡幡匏葉勝雞臚	너풀너풀 박잎은 닭고기 국보다 나왔는데
細細槐花逐馬蹄	자잘한 피나무 꽃은 말발굽 쫓아 날리겠구나.
聞道賢關動奎壁	듣건대 현관에 규벽이 동했다고 하니
應將彩筆吐虹蜺	응당 채색 붓으로 무지개를 토해 내리라.
自多吾黨多奇士	오당(吾黨)에 기특한 선비 많음을 좋아하노니
洗眼行看淡墨題	눈을 씻고 장차 담묵으로 이름 쓰인 것 보련다.

여기에서 점필재는 자신과 함께 공부했던 젊은 제자들을 가리키며 ‘오당(吾黨)에 기특한 선비가 많은 것이 자랑스럽다’고 자부하고 있다. 점필재와 그의 젊은 제자들은 일상적인 사제(師弟) 관계를 넘어서서 도를 함께 하는 동지(同志)임을 분명히 밝혔던 것이다. 많은 제자들이 때 점필재를 도학의 길로 인도해 준 스승으로 추억한 이유이고, 훈구대신들이 점필재와 젊은 제자들을 그토록 폄훼하려 애썼던 까닭이기도 하다.

## 장면 2. 제자에 대한 위로, 제자에 대한 격려 \_\_\_\_\_

점필재에게 학문의 길을 배운 젊은 제자들은 서울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과거에 급제해 선비라면 으레 꿈꾸었던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정하는 길로 들어섰던 것이다. 제자 김흔(金訢)이 성종 2년(1471) 장원으로 급제하던 날, 점필재는 자기 일처럼 한없이 기뻐했다.

殿前聞道選青錢    들으니 대전 앞에서 청전으로 뽑히어  
添却蓬山一箇仙    봉산에 신선 한 사람을 보았다 하누나.  
自是心存溫飽外    스스로 마음을 먹고 입는 것 밖에다 둔다면  
懷中應得筆如椽    가슴 속에 응당 큰 문장을 얻을 수 있으리.

- 〈장원한 김흔에게 부쳐 축하하다[寄賀金狀元訢]〉

임금 앞에서 장원으로 뽑힌 제자에 대한 한없는 기대, 그리고 벼슬길에 나아가더라도 따뜻한 옷과 맛난 음식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당부. 스승의 기쁨과 당부가 간결하지만 간절하다. 정말, 김흔은 뒷날 일본 통신사 서장관, 홍문관 교리, 공조참의 등 중요한 직책을 두루 거치면서 문장으로 일대에 이름을 날리는 인물로 성장했다.

하지만 제자들 모두가 단번에 그런 성취와 기쁨을 줄 수는 없는 법이었다. 때론 쓰라린 실패를 맛본 제자들도 있었지만, 점필재는 그때마다 따뜻한 위로와 실망하지 말고 계속 정진할 것을 당부하는 말로 다독였다. 점필재가 함양군수 시절 가장 가까이 지냈던 유희인이 과거에 떨어졌을 때 지어준 시가 지금도 전한다.

幽懷抱玉未曾攄	가슴에 품은 옥을 꺼내보지 못했지만
肯向朱門學曳裾	어찌 권세가에 드나드는 것 배우겠는가.
歸夢每迷天嶺月	돌아가는 꿈은 늘 함양 달빛 아래를 헤매었고
貧餐不要漢江魚	가난한 밥상이라도 한강 물고기반찬 바라지 않네.
親闈歲晏重添線	어머니는 세밑이라 바느질 더하고 계실 텐데
旅館更長倦秣驢	여관에선 길이 멀어 말 먹이는 것도 귀찮을 테지.
好把壯心謀後學	씩씩한 마음 잘 간직하여 후일을 도모하시게
知君端不負詩書	그대 분명코 시서(詩書)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니.

- 유생원이 과거에 낙방하여 함양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며[送兪生員落第還咸陽]

점필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유호인은 성종 5년(1474) 식년 문과에 급제했다. 시(詩)·문(文)·서(書)에 뛰어나 당대 3절(絶)이라 불리며 성종으로부터 지극한 총애를 받기도 했다.

점필재의 가장 절친한 벗이었던 홍귀달이 신도비명(神道碑銘)에서 밝히고 있듯, “사방의 학자들이 각각 그 그릇의 크고 작음에 따라 마음에 만족하게 얻어 돌아갔는데, 한번 공의 품제(品題)를 거치면 문득 훌륭한 선비가 되어서 문학(文學)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친 자가 태반이나 되었다.”고 했을 정도로 문하에는 언제나 제자들로 가득했다. 함양군수 시절의 제자로는 정여창 · 유호인 · 김흔 · 표연말 · 김굉필 · 곽승화 등이 있고, 선산부사 시절의 제자로는 이승언 · 원개 · 이철균 · 곽승화 · 주운창 · 김굉필 등이 있다. 이들은 점필재에게 배운 뒤, 서울로 올라가 과거를 통해 입신의 과정을 밟아갔던 것이다.



### 장면 3. 성군관을 버리고 점필재를 찾아온 젊은이들

점필재는 선산부사 시절,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모셔오던 어머니를 잃었다. 애절한 심정으로 삼년상을 치르고 있는 동안, 원근에서는 물론이고 천 리의 먼 길 서울에서도 젊은 제자들이 잇따라 찾아왔다. 남효운은 자신과 매우 절친했던 벗인 홍유손에 대해 「사우명행록」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홍유손(洪裕孫)은 남양 아전 홍순치의 아들이다. 대대로 가난하여 옷이라곤 겨우 몸을 감싸는 정도이고 간혹 속옷도 입지 못했다. 경서와 사서를 섭렵하였고, 성품이 방달했다. 과거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고 향리 신분을 면할 계획도 하지 않았다. 신축년에 남양군수 채신보가 글을 잘한다고 하여 신역(身役)을 면제해 주니, 즉시 영남으로 걸어가서 점필재를 뵈고 두시(杜詩)를 배웠다.

향리로 있었던 홍유손은 남양군수가 그의 뛰어난 글재주를 아깝게 여겨 향리의 신분을 면해주자 양준·양개[양침] 형제와 함께 ‘천리 길을 걸어서’ 점필재에게 와서 두보의 시를 배웠다. 그만큼 점필재의 명성은 서울에까지 자자하게 퍼져있었던 것이다. 점필재는 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온 이들을 기쁘게 맞이하며 이렇게 물었다.

神都蔚清壯 서울은 아름답고 맑고 웅장하여  
藹藹文物藪 문물이 가장 성대한 고장이기에  
朝著夔龍群 조정에는 기룡의 무리요  
賢關遊夏友 성군관에는 모두 유하의 벗들이라  
子兮欲聞道 그대들이 도를 듣고자 한다면  
其人無不有 스승 될 사람이 없지 않거늘

胡爲觸炎瘴 어찌하여 무더운 장기를 무릅쓰고  
累巖窮南斗 발이 부르트도록 남쪽 끝까지 왔다.

- 수재 양준과 공생 홍유손에게 주다(贈楊秀才浚洪貢生裕孫)

점필재를 찾아온 젊은이는 홍유손과 양준 형제만이 아니었다. 우선언·강흔·김기손·김일손 등도 이때 찾아와 제자가 된 인물이다. 이런 젊은이들은 무엇 때문에 서울의 성균관을 버리고 먼 변방 영남까지 찾아온 것일까? 그때, 남효온이 상소를 통해 임금에게 올린 내용은 좋은 참고가 된다. 남효온은 “내가 저 사람에게서 도(道)를 배우려 하나 저 사람은 도가 없고, 내가 저 사람에게서 학업(學業)을 배우려 하나 저 사람은 학업이 없다.”면서 성균관의 현실을 고발한 적이 있다. 심지어 성균관 담벼락에는 이런 풍자시가 나붙기도 했다.

誰云芹館是賢關 누가 성균관을 현관(賢關)이라고 말하였던가  
陳腐庸流尸厥官 썩고 용렬한 무리들 그 벼슬을 차지하고 있도다.  
舉酒擬唇掀輔頰 술을 들어 입술에 대어 양 볼만 벌름거리고  
叱儒張口肆兇頑 입을 벌려 유생(儒生) 꾸짖으며 성질만 부리네.

이게, 그 당시 성균관의 실상이었다. 젊은 사류들은 이런 현실에 절망했고, 그리하여 먼 영남에 있는 참스승 점필재를 찾았다. 점필재는 젊은 사류들이 기대를 걸 만한 거의 유일한 존재였던 것이다.

남효온은 「사우명행록」에 다음과 같은 일화를 적어놓고 있다. 제자 김굉필이 스승 점필재에게 자신의 불만을 시로 적어 보냈다는 것이다. 때론 김굉필이 스승 점필재를 배사(背師)한 것으로 이해되기까지 하는 그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점필재 선생이 이조참판이 되었으나 또한 국사를 건의하는 일이 없자 김굉필이 시를 지어 올리기를, “도란 겨울에 갓옷 입고 여름에 얼음물 마심에 있거늘, 비 개면 가고 비 오면 멈춤이 어찌 전능한 일일까? 난초도 만약 세속을 따른다면 마침내 변할 것이니, 소는 밭 같고 말은 탄다는 이치를 누가 믿으리까?” 하였다. 선생이 화답하기를, “분에 넘치게 관직이 경대부에 이르렀으나, 임금 바로 잡고 세속 구제함을 내 어찌 능히 하라? 이로써 후배로 하여금 오졸함을 비웃게 했으니, 구구한 권세의 벼슬길에는 나설 것이 못 되누나.” 하였으니, 대개 이를 싫어한 것이다. 이로부터 점필재와 사이가 나빠졌다.

이때, 점필재는 이조참판의 자리에 있었다. 뭔가 뜻을 펴볼 수 있는 요직인 셈이다. 하지만 젊은 제자들이 보기에 스승의 행동은 성에 차지 않았다.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확실하게 젊은 제자들의 뜻을 대변주어야 한다고 기대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점필재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아직도 훈구대신들이 권력의 핵심에 포진해 있었기 때문이다. 점필재 혼자 힘만으로는 아직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혈기왕성한 젊은 제자들은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컸다. 심지어 훈구대신들과 어울려 지낸다고 비난하는 제자조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때, 남효온은

스승 점필재의 그런 행동을 십분 이해하고 적극 지지했다.

柳下聖人隱下僚 유하혜 같은 성인은 하급 관료로 몸 숨기고  
油油烏帽立明朝 기분 좋게 관복 입고서 밝은 조정에 섰었네.  
群兒疑是同塵汚 더러운 세상과 어울렸다고 사람들 의심하니  
誰識東周意未消 동주로 만들 뜻 가졌음을 그 누가 알겠는가.

- <스스로 읊다[自詠]> 중 제7수

남효온은 몇몇 제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스승을 믿고 싶었다. 더러운 임금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작은 벼슬도 낮게 여기지 않았던 유하혜, 그리고 계씨(季氏)의 가신 공산불요(公山不擾)가 부른다 하더라도 기꺼이 가서 동주(東周)로 만들겠다던 공자의 출처를 들어 변호했던 것이다. 점필재의 제자 김일손도 김굉필을 나무랐다. 여름 한철 나는 여름벌레가 어찌 한 겨울의 차가운 얼음에 대해 말할 수 있느냐고. 스승의 큰 뜻을 함부로 논단하지 말라는 동문 제자이자 절친한 벗으로서의 준엄한 꾸짖음이었다.

夏蟲那可語寒氷 여름 벌레가 어찌 차가운 얼음을 말할까  
大聖猶謙一未能 성인은 한 가지 능하지 못해도 외려 겸손하다오.  
欲識古人無犯隱 옛사람의 은밀함 범하지 않는 것 배우려거든  
莫將牛馬說耕乘 소는 밭 갈고 말은 탄다고 말하지 마시게나.

- <김굉필이 점필재에게 올린 시에 차운하여[次金大猷上估畢齋先生韻]>

## 장면 5. 방황하는 제자에 대한 위로와 당부

점필재와 그의 젊은 제자들이 살았던 성종 대는 흔히 문명이 활짝 꽃핀 시절로 기억된다. 『경국대전』이 완성되고, 세조 때 없애버린 집현전을 대신하여 홍문관이 다시 설치되는 등 문신들이 아연 활기를 띠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적으로 왕위를 찬탈하는 데 협력했던 세조 때의 훈구대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단종의 복위운동을 하다 죽은 사육신은 여전히 역적의 무리였고, 그로 인해 선산의 이맹전, 원주의 원호, 함안의 조려 등 뒷날 생육신으로 기려지는 인물들은 절의의 정신을 가슴에 묻고 은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성종에게 기대를 걸고 세상에 나왔던 김시습도 다시 관동으로 돌아가 버리고, 점필재의 제자 남효온도 전국을 떠돌았다. 그런 남효온을 점필재는 전라도에서 만났다.

守歲錦官城 금관성에서 선달 그믐밤 지새고  
吟詩細柳營 세류영에서 시를 읊기도 하였네.  
同君襟抱暢 그대와 함께 회포가 서로 통하여  
連日笑談清 여러 날 동안 맑은 담소 나누었지.  
滄海倏然別 창해에서 갑자기 서로 이별하니  
韶華空復情 봄날이 공연히 다시 정겹게 하네.  
完山有餘味 완산에는 남은 음식이 있는지라  
思與禰衡傾 예형과 함께 기울이길 생각하네.

- (추강 남효온에게 부치다[寄贈南秋江])

점필재가 전라감사로 나주에서 머물 때, 남효온과 만나 며칠 밤을 함께 지새웠다. 그러면서 못다 나눴던 회포도 풀고 맑은

담소로 서로를 위로하기도 했다. 그렇게 헤어졌건만, 점필재는 쓸쓸히 전국을 떠돌고 있는 남효온이 다시 생각났다. 그리하여 예형(彌衡)의 고사를 빌려가며 애뜻하게 제자 그리는 마음을 담아 보냈다. 예형은 후한 때의 고사(高士)인데, 공융(孔融)이 그의 재주를 사랑하여 20세 어린 그를 벗으로 사귀었다고 한다. 점필재는 자신을 공융에 비기고 남효온을 예형에 비겼다. 점필재는 그들처럼 사제 관계도 있고 나이 차이도 잇은 채 벗으로서 남효온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遨遊南裔幾多城 남쪽 변방의 얼마나 많은 성에서 노닐었는지  
 却愧吟詩太瘦生 시 읊느라 몹시 수척함이 도리어 부끄럽네.  
 枉註蟲魚空碌碌 부질없는 훈고나 함은 그저 녹록할 뿐이니  
 不如歸勒孟堅銘 돌아가서 맹견의 명을 새김만 못하리.

- <남추강에게 화답하다(和南秋江)>

울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호남의 여러 지역을 전전하고 다니는 나그네 신세, 고심하며 시를 짓느라 수척해진 몰골. 그런 제자 남효온을 바라보는 스승의 가슴은 몹시도 쓰라렸을 터다. 그리하여 맹견(孟堅) 고사를 빌려 다시 시를 써서 보냈다. 맹견은 후한의 문장가 반고(班固)의 자이다. 더 이상 떠돌지 말고 어서 돌아가서 흉노 정벌한 공훈을 바위에 새겼던 반고처럼 학문에 정진하라는 바람. 그건, 방황하는 제자의 마음을 다잡아주기 위한 스승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것이다.

## 장면 6. 기대고 싶은 스승의 너른 품안

호남에서 이루어진 점필재와 남효온의 만남은 그렇게 애잔한 여운을 남기고 봄날에 끝났다. 점필재는 남효온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울로 올라왔다. 한성부좌윤에 체수되고, 다시 공조참판으로 자리를 옮기며 서울에서 임금을 모시게 되었던 것이다. 남효온도 스승의 당부를 듣고 서울로 올라갔을까?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다가 이듬해인 성종 20년 정월, 너무나도 비통한 작품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당시 공조판서로 있던 점필재에게 죽은 자신을 스스로 장사 지낸다는 <自挽詩> 4수를 지어 정월 초하룻날 보냈던 것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죽음의 시를 지어 스승에게 보냈을까? 남효온의 글을 보면, 둘째 아들이 굶주림과 병으로 죽었던 데다가 기대를 걸었던 만사위 화숙(和叔)도 죽었다. 절망적인 일들이 겪은 충격으로 겨우 내내 심한 병을 앓았었고, 그러다가 문득 죽음을 그림자를 보았던 것이다. 그로 인해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치르는 유례없는 의식을 글로 치렀던 것이다. 것처럼 삶과 이별을 고하는 의식을 치르는 절박한 순간, 남효온은 최후의 한 사람으로 스승 점필재를 떠올렸다. 꼭 1년 전 설달 그림과 정월 초하루를 남도 끝에서 함께 보내며 술한 회포를 나누는 기억도 새로웠거니와 남효온이 온몸을 기대고 싶은 사람으로는 점필재가 유일했는지도 모른다. 점필재는 남효온에게 그런 의지처였던 것이다. 부친을 일찍 여윈 남효온은, 어쩌면 스승 점필재를 보며 아버지의 넉넉한 품을 그리워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스물세 살이나 어린 36세의 제자가 자신의 죽음을 59

세의 노스승에게 고하는 그 기이한 장면이야말로 점필재가 젊은 제자들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정말이지 점필재는 그리움과 걱정, 그리고 위로가 가득 담은 긴 편지로 제자를 보듬어주는 스승의 마음을 전했다.

추강 족하(足下)여! 내가 호남에서 서울로 돌아온 지 거의 반년이 되었으나, 우리 추강의 문안이 한 번도 이르지 않음을 내심 괴이하게 여겼소...오늘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마치 재상의 문에 올리는 글처럼 단정하고 깨끗한 서찰을 홀연히 얻었는데, 뜯어서 보니 바로 우리 추강의 편지였소...스스로 지은 만가(挽歌) 4장이 아래에 실려 있어 두세 번 읽고 나서야 비로소 추강이 멀리 유람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병 때문이었음을 믿게 되었소. 한스러운 것은 가을과 겨울 이래로 나 또한 병들어 열흘에 아흐레는 누워 지냈기 때문에 족하를 찾아가서 정담을 나누지 못한 것이요.

- <남추강에게 답한 편지[答南秋江書]>

점필재는 호남에서 헤어진 뒤 1년 동안 남효온의 소재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받아든 편지와 죽음의 시편. 하지만 점필재 자신도 그간 심하게 앓고 있었다. 그들이 주고받은 이날의 병고(病苦)는 죽음의 그림자를 질게 드리운 것이기도 했다. 점필재는 그로부터 불과 7개월이 지난 뒤 병으로 사퇴하고 밀양으로 내려가 성종 23년 죽었던 것이다. 그리고 남효온도 바로 그 해에 죽었다. 스물세 살 차이 나는 늙은 스승과 젊은 제자는 그렇게 같은 해에 같은 길을 갔다.



## 장면 7. 우러러볼수록 더 우뚝해지는 스승

남효온은 스승 점필재에게 <자만시>를 그렇게 보내놓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지막으로 될 전국 방랑의 길을 다시 떠난다. 발길은 호남의 끝 장흥(長興)에 한동안 머물렀다. 그러던 남효온은 스승 점필재를 마지막으로 만나 뵙기 위해 영남 밀양을 찾았다. 죽기 1년 전, 싸늘한 늦가을 영남루 위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남효온은 이런 시를 지어 올렸다.

甌峰道士下青牛	시루봉 도사께서 푸른 소에서 내리시니
紫府仙曹冠佩稠	자부의 신선들이 의관 갖추고 운집했네.
千載一人金估畢	천년에 한 사람은 점필재 김 선생이요
百年勝地嶺南樓	백 년의 명승지로는 밀양의 영남루라오.
城根浪打寒潭秀	물결 부딪는 성 뿌리엔 찬 못이 수려하고
沙岸霜深栗葉秋	서리 깊은 모래언덕엔 밤 잎이 가을이라.
鼙耳漸明歌管發	풍악 소리 울려서 먹은 귀가 밝아오지만
他鄉聽樂摠堪愁	타향서 듣는 음악이라 근심만 가득하네.

- <밀양 영남루에서 점필재를 뵈고[密陽嶺南樓謁佔畢齋]>

남효온은 수많은 제자에 둘러싸여 앉아 있는 스승 점필재를 바라보다가, 문득 현결찬 영남루와 참으로 닮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영남루가 백년 최고의 명승이듯, 점필재는 천년 최고의 인물로 다가왔던 것이다. 남효온만 그랬던 것일까? 실록을 보면 병들어 낙향하는 스승에게 가마꾼을 태워 보내자고 건의했던 제자 김일손과 만년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녹봉을 주자고 건의했던 제자 이칙(李則)은 집요한 탄핵에 시달렸다. 그것이 훈구대신의 논리처럼, 임금의 은혜를 빌려 사사로운 은

혜를 갚으려는 것일지 몰라도 제자들은 자신을 길러준 스승에게 최대한 그렇게 예우하고 싶었다. 그건, 점필재가 점점 우뚝한 존재로 제자들의 가슴에 자리 잡아갔다는 말이기도 하다.

절친한 벗 홍귀달은 점필재가 늙어서도 경사를 공부하는 데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고, 젊은 후배들이 찾아와 자기 역량에 맞게 배워 돌아갔다고 증언했다. 그 점,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문장을 배워가고, 어떤 사람은 도덕을 배워갔다. 때론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그건 점필재의 너른 옷자락에 매달린 어린아이의 치기어린 투정과 같은 것이었을지 모른다. 사실 점필재가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조심 정치관에서 운신했던 까닭은, 질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던 훈구대신들의 살기 때문이었을지 모른다. 혈기 방장한 젊은 제자들을 자식 다독이듯 타이르던 사부(師父) 점필재가 죽고 나자 우려는 마침내 참혹한 현실로 들이닥쳤다.

유자광과 이극돈이 앞장서 무오사화를 일으켜 구심점 잃은 젊은 제자들을 스승 점필재와 함께 죽음으로 잠재우려 했던 것이다. 그날 죽음의 자리에는 스승의 뜻을 시종일관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또는 스승에게 배운 뜻을 보다 견결하게 밀고 나가보려던 제자들도 함께 모였다. 그들이 함양과 선산에서 점필재를 중심으로 옹기종기 둘러앉아 눈을 반짝이며 문장의 참맛과 인간의 도리를 배워갔던 그 처음처럼.

사화(士禍)에 대한 강렬한 기억 때문에 우리는 흔히 점필재와 그의 문도들에 대한 기억을 사화의 즙음에서 멈추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 ‘젊었던’ 그들이 점필재의 벗으로 또 제자로 인연을 맺고,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된 파란의 역사적 현장까지 거친 이후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로 칭했던 그 꿈들을 이후의 삶에서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길을 한 번 더듬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들의 행보가 한양의 조정을 대단히 울렸다가 역사적 주류로 기억되었다거나 하지는 않을 수 있다. 또 두 차례의 사화기, 그 복잡하고 고통어린 시기를 거쳐 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따져보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묘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그 젊은 제자들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증언해 주는 목소리들이 있다.

『점필재집』(기축본) 「문인록」에는 모두 49명의 선비가 점필재의 문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 지역적으로는 함양, 진주, 안동, 청도를 비롯한 경상도의 인물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전라도의 최보를 비롯하여 경기도의 홍유손, 양준·양침 형제가 있고 또 한양이나 밀양에서 맺어진 관계가 다른 곳에서의 만남을 통해 더 깊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전라도관찰사였던 점필재와 깊은 상심 속에 산천을 떠돌던 남효온이 전라도에서 만났을 때처럼.

한편으로 생몰년이 미상인 경우를 제외하면, 무오사화와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난 벗들이 한 그룹을 이룬다. 그리고 나면 중종대까지 활동한 그룹이 의외로 많이 남는다. 이철균, 강경서, 이계맹, 강중진, 홍유손, 유순정, 신영희, 강훈, 주윤창이 그들이다.

점필재의 선산부사 시절의 제자 주윤창(??)은 『중종실록』에 이름이 세 번 정도 거론된다. 첫 번째는 중종8년(1513) 2월 청양 부사정으로서 시사(時事)를 상소했다는 것이다. 중종이 “지금 이 상소를 보건대 뜻이 있는 사람인 듯하니 그 사람이 쓸만하면 서용(敍用)하도록 하라.” 했다는 기록이 이어 나온다. ‘뜻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중종의 평이 심상치 않다. 그 다음 기록은 약 2개월 뒤에 삼년상의 제도를 비롯한 시사의 문제에 대해 상소를 올렸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의 ‘뜻’을 더 분명하게 드러낸 상소였을 것이다.

청양(靑陽)에 사는 부사정(副司正) 주윤창(朱允昌)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삼년상은 천자에서 서인까지 귀천을 막론하고 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인은 부모의 상이 백일(百日)을 미치지 못하니, 『대전(大典)』의 백일의 법을 고쳐 다시 삼년상을 또 세우소서. 폐조를 지나면서부터 시골에는 아름다운 풍속이 없어졌고 조정에는 의로운 인사가 없어, 오염을 그대로 따르고 구습이 아직도 남았으니, 청컨대, 각도 관찰사가 순행할 때 『삼강행실』을 강하게 하여 우부(愚夫愚婦)로 하여금 두루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습속의 더러움을 씻게 하소서. 지금 습속이 너무 사치하여 제도를 어기고 웃사람에 견주므로 관구(冠屨)가 도치되었습니다. 청컨대 각도의 수령과 찰방으로 하여금 참란한 무리를 금하게 하소서.”하였는데, 이를 예조에 내렸다.

- 『중종실록』 8년(1513) 4월 14일

주윤창은 일반 백성까지 부모의 상을 삼년상으로 치루는 것을 성문화된 국법으로 세우고 『삼강행실도』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 풍속을 교화할 수 있도록 하자고 상소하고 있다. 점필재와 그 사우들이 『주자가례』를 따르는 삼년상을 정식화하여

유교적 삶의 기반을 갖추어 가고자 했던 그 열망을 주윤창은 참으로 잘 알고 있었을 터이다. 삼년상 문제는 조선 초기부터 예법 문제에서 늘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점필재와 그 제자들은 삼년상을 자발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유교적 이념을 온전하게 갖춘 선비의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주자가례』와 『소학』은 그 구체적인 지침이었고, 『삼강행실도』는 그러한 인물들을 그림과 글로 구체화하여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보급되도록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철균(1450-1514) 또한 점필재의 선산부사 시절, 20대 후반의 나이로 주윤창과 함께 공부했던 사람이다. 세조10년(1464) 일찌감치 진사시에 합격하고도 오랜 뒤인 연산군2년(1496)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는데, 곧 갑자사화가 일어나 장 1백대를 맞고 종의 신분이 되어 창성부로 쫓겨가고 만다. 이후 몇 년을 훌쩍 뛰어넘은 중종2년(1507) 동지사 신용개(申用澗)가 성균관직장으로 있던 이철균을 “직위가 낮으니 자품을 올려 주라”고 중종에게 추천했다는 기록이 『중종실록』에 나타난다.

이철균을 중종에게 추천한 신용개는 점필재의 「문인록」에 이름이 올라 있지는 않다. 그러나 무오사화 때 점필재의 문인이라 하여 한때 투옥되기도 했거니와, 홍유손과 교분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김일손·강혼 등 점필재의 제자들과 사가독서를 함께 하며 맺은 교분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눈여겨볼 것은 신용개가 이철균을 “경학에 밝아 사표(師表)가 될 만한 사람으로 추천”했다는 점이다. 점필재의 문도, 또는 그 벗이라는 인연이 점필재 사후에도 여전하게 어떤 구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건의가 있고 세 달 뒤에 이철균은 성균관사예가 되고, 이후 사간원의 관원

이 되어서 국정에 관한 의견을 왕에게 개진하는 언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중종8년(1513) 드디어 성균관대사성이라는, 선비들의 큰 스승이 되는 자리에 올랐다. 아래의 인용문은 이철균이 성균관대사성으로서 세상을 떠난 뒤, 조정에서 왕과 신료들이 나누었던 대화의 일부이다.

“죽은 대사성 이철균은 생활이 청렴하고 가난하여 초상을 치를 수가 없다고 하니, 내관(內棺)과 외곽(外槨)을 지급하도록 하라.”

사신은 논한다. 이철균은 청렴하고 소박하며 단아하고 정직하여 권력과 이익을 구하지 않았으며, 집에 있을 적에는 담박하여 처사와 같은 기풍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높이 받들어 존경하였다.

-『중종실록』 9년(1514) 12월 3일

이철균이 ‘오랫동안 유생(儒生)의 종장(宗長)이라 칭해지고 그리고 청렴결백한 처사의 모습으로 그려진 이 장면은 젊은 시절 큰 스승 점필재와 함께 했던 날들 가졌던 그들의 꿈이 조금이라도 실현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입만 열면 유생을 꾸짖으며 성질을 낸다[叱儒張口肆兇頑]’며 성균관의 선생들을 비판했고, 그렇기에 한양을 떠나 고향을 떠나, 혼자서 또 여럿이서 점필재를 찾아가 스승으로 따르고 배웠던 그들이었다. 그들이 함께 가졌던 꿈을 현실에서 실현해 보려는 그 ‘젊은’ 열망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었다. 앞서 주윤창은 중종대에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법령으로 삼년상을 실시하자는 상소를 했다. 그 또한 점필재의 제자로 벗으로 함께 하며 그들이 가졌던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해 보려는 바로 그 ‘젊은’ 열망을 여전히 힘의 원천으로 하는 것이었다.